

<2015.09.30.>

奎北日報

2015년 09월 30일 수요일
007면 자치시대

고창군, 고속도로 휴게소서 지역 농특산품·관광지 홍보

고창군이 지난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우수 농특산품과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와 이상호 군의장, 고창군새마을부녀회, 좋은이웃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 30여 명이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의 명품 농특산품과 주요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복분자 음료 시음과 더불어 복분자 한과, 고구마말랭이, 잡곡 등 고창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샘플세트 500개를 증정하고 고창읍성,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군 우수 농특산품 홍보-판촉행사

고인돌휴게소 귀성객 대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의 우수 농특산품과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박우정 군수와 고창군새마을부녀회, 좋은이웃영농조합법인 등 30여명은 지난 25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의 명품 농특산품과 주요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이날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복분자 음료 시음과 더불어 복분자 한과, 고구마말랭이, 잡곡 등 고창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샘플세트 500개를 증정하고 고창읍성,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의 우수 농특산품과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화관광자원을 적극 알렸다.

휴게소에 들러 행사에 참여한 이용객은 “식사를 하려고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뜻하지 않게 다양한 고창군

농특산품을 맛보고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덕분에 고향에 가는 길이 더욱 즐겁고 마음 따뜻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고창소식]서해안고속도 휴게소 고창알리기 행사 등



【고창=뉴스시스】김종호 기자 = ◇서해안고속도 휴게소 고창알리기 행사

전북 고창군이 우수 농특산품과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는 추석맞이 홍보행사를 열었다.

군은 25일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군새마을부녀회, 좋은이웃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휴게소(하행)에서 귀석객과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행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에서는 복분자음료 시음코너가 운영됐고 참여한 관계자들은 복분자한과와 고구마말랭이, 잡곡 등 고창의 대표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방문객들에게 증정하며 명절의 넉넉한 정을 전달했다.

또 고창읍성과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알렸다.

◇고창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북 고창군이 추석명절과 전통시장 개장 5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군은 25일 박우정 군수와 공무원, 여성단체 회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장보기 행사가 고창전통시장에서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고창전통시장 개장 50주년을 맞아 더욱 규모가 큰 장보기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기관 사회단체와 군 공무원들이 참여해 2억3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물건을 사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저탄소 명절 보내기 캠페인

고창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뜻깊은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25일 오후 군청과 관통도로,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그린스타트 고창네트워크,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강살리기네트워크 등 유관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으며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seun6685@newsis.com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서 농특산물 홍보전

전북 고창군은 25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 휴게소에서 고창의 우수 농특산품과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새마을부녀회, 좋은이웃영농조합법인 등 30여명이 참여해 휴게소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의 명품 농특산품과 주요 관광 자원 등을 홍보했다.

군은 이날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복분자 음료 시음과 더불어 복분자 한과, 고구마말랭이, 잡곡 등 고창을 대표하는 농특산품 세트 500개를 증정하고 고창읍성,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문화관광자원을 알렸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휴게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과 지역이 우수 농특산품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명품 농·특산물 생산지 고창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

고창군, 고속도로 휴게소서 농·특산품 등 홍보



25일 박우정 고창군수가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휴게소 이용객에게 농·특산품 샘플세트를 증정하며 고창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농·특산품과 주요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고창군은 25일 박우정 군수와 고창군새마을부녀회, 좋은이웃영농조합 등 30여명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복분자 음료 시음과 더불어 복분자 한과, 고구마말랭이, 잡곡 등으로 구성된 샘플 세트 500개를 증정하고 고창읍성,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박우정 군수는 “매년 명절 즈음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휴게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과 지역 우수 농·특산품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에게 고창을 알리고 새로운 고객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 NSP TV.